

7. '청소년의 사이버 문학 수용 실태'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세워 보았다. 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계획>	<수정 보완 방안>
조사 내용	1. 사이버 문학의 특성 2. 수용 실태 3. 외국의 사례 4. 전문가 의견	⇒ · 청소년의 일반 독서 실태를 포함할 것. · <u>사이버 문학 사이트의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것.</u> ①
조사 방법	1. 사이버 문학의 특성 - 서적(단행본, 잡지, 백서 등) 참조 2. 수용 실태 - 설문 조사 3. 외국의 사례 - 서적과 인터넷 참조 4. 전문가 의견 - 탐방(작가 ○○○, 평론가 ○○○)	⇒ · <u>외국의 사례는 사이버 문학의 형성 과정과 양상이 우리와 유사한 나라를 포함할 것.</u> ② · 전문가 탐방이 어려우면 서적에 소개된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할 것.
결과 정리	1. 사이버 문학의 특성 - 한 쪽 정도로 정리 2. 설문 - 성별, 장르별, 접속 시간별로 정리 3. 외국의 사례는 나라별로 정리 4. 전문가 의견은 대담 형식으로 정리	⇒ · <u>설문 결과는 통계표와 그래프로 정리할 것.</u> ③ · 전문가 의견은 대담 내용을 정리하여 설명적으로 서술할 것.
보고서 구성	1. 조사 방법 2. 조사 배경과 목적 3. 설문 결과의 분석 4. 외국의 사례 5. 전문가 의견 6. 요약, 정리	⇒ · <u>'1. 조사 방법'과 '2. 조사 배경과 목적'의 순서를 바꿀 것.</u> ④ · <u>조사 배경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도록 할 것.</u> ⑤

8. 다음 만화를 보고 떠오른 생각을 글로 쓰려고 한다. 글의 주제에 관한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곳에 안주하기보다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내용이 좋지 않을까?
- ② 때로는 편리함보다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글도 좋겠지.
- ③ 목표 달성에만 신경 쓰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무시하기 쉬운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 보는 글은 어때?
- ④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글도 좋을 거야.
- ⑤ 자동차 여행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글은 어떨까?

9. 글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메모를 작성하였다. 주제와 조건에 맞게 메모를 활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주제 : 속담의 특성과 기능을 알고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 ▶ 조건 : 본론을 세 문단으로 구성한다.

1. 속담의 개념
 -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짧게 나타낸 관용 표현
2. 속담의 형성 과정
 - 의미 있는 사건 발생 → 사건의 묘사 → 묘사가 다듬어짐 → 언중의 공감 → 속담으로 정착, 전파
3. 속담의 표현 형식
 - 군더더기가 없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언어
 -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대조와 대구
4. 속담의 기능
 - 교화 :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풍자 :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라?"
5.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 속담의 짝
 - "모르는 게 약이다." ↔ "아는 게 힘이다."
 - "공든 탑이 무너지라." ↔ "십년공부 도로 아미타불."
6. 속담 활용이 줄어드는 이유
 - 농경 사회의 어휘가 대부분임
 - 전근대적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주로 담고 있음

- ① '1'은 서론에서 활용하되, 속담에는 생활에 유용한 내용이 들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음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한다.
- ② '2'와 '3'을 본론의 첫째 문단으로 함께 묶어 서술하여 속담의 특성을 드러낸다.
- ③ '4'는 본론의 둘째 문단으로 삼되, 보다 다양한 기능을 밝히고 그에 해당하는 예를 충분히 제시한다.
- ④ '5'는 본론의 셋째 문단으로 삼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속담을 제대로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힌다.
- ⑤ '6'은 결론에서 활용하되, 이 때문에 속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속담을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예를 들어 제시한다.

10. (가)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나)의 광고를 만들었다. ㉠에 들어갈 표제어로 적절한 것은?

- (가)
- 예상 독자와 목적 : 일반 대중, 설득
 - 구성 : '표제어 → 그림 → 내용' 순으로 배치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 내용 :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인 헌혈 카드 갖게 하기
 - 표현 : 비교를 통해 예상 독자의 자긍심을 강조하기

(나)

㉠



신용 카드, 전화 카드, 현금 카드, 회원 카드.....
당신의 지갑을 채우고 있는 카드 중,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있나요?
대한적십자사

- ① 당신만의 자랑, 사랑을 담고 있는 헌혈 카드를 만드십시오.
- ② 온갖 카드 다 버려도 사랑의 헌혈 카드는 꼭 간직하고 싶습니다.
- ③ 수많은 카드보다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진짜 카드가 있습니다.
- ④ 다른 사람을 위한 카드보다 나만을 위한 카드가 많은 것은 아닙니까?
- ⑤ 다른 카드보다 가치 있는 헌혈 카드,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11. <보기>의 글을 읽고 협의하기를 통한 글다듬기를 하고 있다. 협의 내용 중 타당한 지적이 아닌 것은?

—<보 기>—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 환경 오염, 쓰레기 처리 시설 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물 부족 문제. 우리 나라는 말 그대로 물을 '물 쓰듯이' 한다. 대체재가 없는 물이 석유보다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이고 보면, 확실히 물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물이 아니다. 둘째는 환경 오염 문제이다. 오염의 정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는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이다. 별 타당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단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고민한다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

—<협의 내용>—

동준 : 다 읽었으면 얘기 좀 해 봐. 부탁한다.
혜란 : 내가 먼저 말할까? 문제 의식은 좋은 것 같아. 정말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잖아. 그런데 글을 읽어 보니까 ① 문제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동준 : 그래?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 정도 쓰려고 했는데.....
윤서 : 그러면 ② 글 첫 부분에서 분명하게 밝혔어야지.
호재 : 그리고 내 생각에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③ 왜 그것이 문제인지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혜란 : 하나 덧붙이면, 이런 글을 쓸 때는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좋은데, ④ 이 글은 감정이 너무 개입되어 있어.
윤서 : 말 나온 김에, 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문제별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어때?
동준 : 아, 무슨 지적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다 사람 잡겠다.

12. 문장 성분상, <보기>와 같은 유형의 잘못을 범한 것은?

—<보 기>—

나는 어제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 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 ① 대통령은 선수촌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치하했다.
- ② 집회는 관중도 못 미친 데다 관중들의 이탈이 잦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 ③ 남자가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 피부 관리로 아름다움을 가졌다.
- ④ 그 수영장은 수강생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수강생들이 오면 건강에 따라 조정해 줘.
- ⑤ 지현이가 친구를 만나 길거리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도 없이 떠나가 버렸다.

13. 다음 사전의 내용을 참고할 때 '길항'의 뜻풀이로 알맞은 것은?

길항근(拮抗筋) 拮[의] 같은 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동시에 하는 한 쌍의 근육.
길항 신경(拮抗神經) 拮[의]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면서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길항 작용(拮抗作用) 拮[생] ①생물체의 어떤 현상에 대하여, 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서로 그 효과를 줄이는 작용. ② 어떤 종류의 균은 잘 증식하는 반면, 다른 종류의 균은 발육이 억제되는 작용.

- ① 따르지 않고 맞서서 반항함.
- ② 서로 버티면서 대등하게 맞섬.
- ③ 어떤 것에 대하여 거스르는 움직임.
- ④ 한 물체의 힘이 다른 물체에 미치어 영향을 줌.
- ⑤ 어떠한 행위 결과의 반응을 보아 행동을 변화시킴.

14. <보기>의 ㉠~㉣에 들어갈 낱말들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1점]

<보 기>

· 네가 (㉠)이 미친한 만큼 남들이 업신여기기 쉬우나 남
이야 업신여기든 말든 내 앞만 닦으면 그만이니…….
- 홍명희, 임꺽정 -

· 단 열흘 만에 대정 고을 유생들을 (㉡)으로 하여 자위
단이 결성되었으니, 이름하여 상무사라 하였다.
- 현기영, 변방에 우짚는 새 -

· 그 소년의 몸을 흐르는 피가 자신과 (㉢)을 같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은 용서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었다.
- 이문열, 영웅시대 -

- | | | |
|------|----|----|
| ㉠ | ㉡ | ㉢ |
| ① 근본 | 근간 | 근원 |
| ② 근본 | 근원 | 근간 |
| ③ 근원 | 근간 | 근본 |
| ④ 근원 | 근본 | 근간 |
| ⑤ 근간 | 근본 | 근원 |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A] {
아늑한 이 항구—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뫼부리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앞 대일 ㉡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 경청한다

[B] {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다) 때때로 머리 들어 ㉣ 북신(北辰)을 바라보며
상시(傷時) 노루(老淚)를 천일방(天一方)에 지게 한다.
우리 동방 문물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라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해추(海醜) 흉모(兇謀)*에 큰 수치를 안
고 있어
백분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리거든
이 몸이 무상(無狀)한들 신자(臣子) 되어 있었다가
궁달(窮達)이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지만
㉣ 우국(憂國) 단심(丹心)이야 어느 각(刻)에 잊을런고.
강개(慷慨) 겨운 장기(壯氣)는 노당익장(老當益壯) 하다가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雪憤伸冤)**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死諸葛)도 생중달(生仲達)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孫臏)도 방연(龐涓)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손발이 갖춰 있고 명맥(命脈)이 있었으니
서절구투(鼠竊狗偷)***를 조금이나 두려워할까.

㉣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 해추 흉모 :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
** 설분신원 :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씻음.
*** 서절구투 : 쥐나 개처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무리.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가)와 (나)에는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가 나타나 있다.
② (나)와 (다)에는 화자의 무력감과 환멸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③ (가)와 (다)에는 청년기 시인의 낭만적 열정이 투영되어 있다.
④ (가), (나), (다) 모두 암울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역설과 반어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6. [A]와 [B]가 작품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 ① [A]는 화자가 떠나고 싶어 하는 공간을 드러내고, [B]는 머물고 싶어 하는 공간을 보여 준다.
- ② [A]는 화자가 갈등하는 이유가 되고, [B]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 ③ [A]는 화자의 소중했던 과거를 함축하고, [B]는 밝은 미래를 암시한다.
- ④ [A]는 화자를 상상에 몰입하게 하고, [B]는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 ⑤ [A]는 화자의 감상성을 드러내고, [B]는 힘찬 의지를 나타낸다.

17. ㉠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및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떠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 유치환, 생명의 서 -

- ②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 ③ 흰 고개 검은 고개 목마른 고개 넘어/ 짝짝한 서울길/ 몸팔러 간다.// 언제야 돌아오리란/ 언제야 웃음으로 화안히/ 꽃피어 돌아오리란/ 땀기풀 안쓰러운 약속도 없이/ 간다.

- 김지하, 서울길 -

- ④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

- 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한 발작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18. <보기>는 (나)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작품과 비평문을 함께 읽고 토론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 작품이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이다. 시인은 스크린에 나타난 장면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하거나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를 배치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영화 관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까지 침투해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 줌으로써,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 ①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전체의 맥락으로 보아 이 작품은 상황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 ② 이 작품이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 정작 시인은 현실을 풍자하려고 한 게 아닐까?
- ③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했는데, 시 전체가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여 주고 있는 게 아닐까?
- ④ 영화 관람을 일상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정치적 사건을 비유한 것이 아닐까?
- ⑤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작품은 어느 시대애나 있는 보편적 인간의 모순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19. <보기>의 조건에 따라 ㉡에 들어갈 시구를 쓸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전체 시상의 흐름에 맞게 구성한다.
- 화자의 신분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다.
- 가급적 현대어로 쓰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 ① 적의 배에 달려 들어 선봉을 무찌르면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 ② 같은 배이지만 가진 바가 다르니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구나.
- ③ 가을 달 봄바람에 높이 베고 누워 있어
바다 물결 없는 평안함을 다시 보려 하노라.
- ④ 이 강산 부평 같은 어부의 삶을
일엽주(一葉舟) 아니면 어디 붙어 다닐런고.
- ⑤ 바람 쫓은 구름은 원근(遠近)에 쌓여 있고
아득한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일세.

20. ㉠~㉢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점]

- ① ㉠은 떠나는 자신을 받아 줄 알맞은 조건을 의미한다.
- ② ㉡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는 시상의 흐름을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 ④ ㉣는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상징한다.
- ⑤ ㉤는 시의 주제를 직접 노출하고 있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들어가두 괜찮으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 위로 오른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다. 바깥이 조용해진다. 아마 주사와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소년이 책 ㉠ 나부랭이를 챙겨 가지고 나온다. 부러진 연필 토막이 희미한 남포 불빛을 받아 눈에 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어둡고 냄새가 고약하다. 소년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벽 중간쯤에 있는 못에다가 건다. 호야가 양철에 부딪치면서 소리를 낸다. 소년이 나간다. 그는 불 건너편 벽에 기대앉아서 담배를 피워 문다. 연기를 내뿜는다.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린다.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둥근 바탕에 가로로 5년 2반이라 써어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써어 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 하는구나.”

“예. 접때두 일등했어요.”

아, 이건 뽀뽀스럽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네요, 여긴 이모부 댁이에요. 저이 집은요, 월출리예요. 여기서 삼십 리나 들어가요.”

가난한 대학생. 덜커덩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쉰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뺏어 낸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 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씩 둘씩 골

[A] 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아, 이럴 때 팡팡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또 흔든다. 고무신 짝 끄는 소리가 들려 온다. 식모의 고무신 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배 속으로 쑥 가라앉는다.

“학관 여기서 다니니?”

그는 눈을 계승처럼 뜨다. 심지를 줄인 남꽃불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방바닥이 뜨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 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는다. 넥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는다.

“일등을 했다구?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푼 안 들이고 나랏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한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에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

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 온 셈이다. 차라리 천재이었을 때 삼십 리 산 골짜기로 들어가서 땀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 누구나 다 템스 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허영계 색이 바랜 짧은 바지를 입고 읍내까지 몇 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이모 집이나 고모 집이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픈 배를 졸라매고 낯고 무거운 구식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다 끼고 다가오는 학기의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 없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남는다. 그는 출세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것도 주임 교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하나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따라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적중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에 있다.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그는 그가 처음 출발할 때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아—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임이여!

- 서정인, 강 -

21. ‘그’와 소년의 만남이 갖는 서사적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그’와 소년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되도록 한다.
- ② ‘그’로 하여금 행복한 유년 시절을 회상하게 한다.
- ③ ‘그’가 소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
- ④ ‘그’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 ⑤ ‘그’가 자신의 과거에 자부심을 갖는 동기를 마련해 준다.

22. [A]의 표현 방식이 주는 효과를 잘못 지적한 것은?

- ① 현재형 서술로 삶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 주는 듯해.
- ② 밤 풍경을 주관적으로 묘사하여 고단한 일상을 암시하는 듯해.
- ③ 사물을 활유적으로 표현하여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듯해.
- ④ ‘팡팡 두드린다/ 어루만지듯 흔든다’의 대비에서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것 같아.
- ⑤ 빠른 장면 전환은 단절되면서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의식을 보여 주는 것 같아.

23. <보기>를 참고할 때, ㉠과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나부랭이 ㉠ 어떤 부류의 사람이나 물건을 낮잡아 이르는 말. ㉡양반 나부랭이/ 관료 나부랭이.

- ① 동우회라는 것은 일선인(日鮮人)의 동화(同化)를 표방하고 귀족 떨거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둑, 장기로 세월을 보내고 저녁때면 술추렴이나 다니는 회이다. - 염상섭, 만세전 -
- ② 조롱게 생긴 계집애한테루 장가를 들라면서 기생 넌을 꾸어차구 다니니 하늘이 알아보실 일이지. - 채만식, 탁류 -
- ③ 주제 넘은 기자 너석을 내쫓자, 이놈이 제일 말썽이다. - 김성한, 무명로 -
- ④ 관청 주변에서 턱찌끼 먹고 살아온 여자라 벌써 친정 동생에 조카에 일가 푸네기가 네댓 명이나 되었다. - 송기숙, 녹두장군 -
- ⑤ 그의 오른쪽으로 놓인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이 한 때가 높은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다. - 김승옥, 차나 한 잔 -

24. ㉠의 함축적 의미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② 꿈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슬픔과 고통을 포용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 ④ 삶에는 흘러가 버린 강물처럼 되찾을 수 없는 것이 있다.
- ⑤ 현실에 모순이 있다고 해서 늘 저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5. '그'의 현실 인식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모듈별 토의를 하였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사고 과정	해석, 평가의 초점	해석, 평가에 따른 글쓰기
문제 발견	'그'의 자기 인식	'그'는 대학생이지만 자신을 낙오자로 인식한다.
문제 분석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가난 탓으로 돌리면서 과거에만 집착한다.
비판	현실 인식이 지니는 문제점은?	㉠
극복 방안 탐색	현실 인식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과거의 이상은 변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자신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제안	바람직한 현실 인식은?	현실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수용하여, 자신의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 관점을 가진다.

- ① 과거에 사로잡혀 현실을 편협하게 바라본다.
- ② 자신의 문제를 상황 탓으로 돌린 채 책임을 회피한다.
- ③ 자신의 현실에 담긴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 ④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무시한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때 6·25 직후
 곳 서울 변화가에 위치한 최 노인의 집

최 노인 (넋두리 외우듯) 나 원…… 일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비투러지다니 정말 집을 옮기든지 해야지…… 자식 놈이라고 벌여 대기를 하는가, 장사가 제대로 되는가…… 나 원…… 계다가 가게문을 닫은 지가 두 달이나 되었는데 무슨 놈의 세금은 세금이야! 설상가상으로 저 빌어먹을 낮도깨비 때문에 화초밭이 망쳐지는 것은 고사하고 집 기둥까지 썩게 되었으니…… 에잇 참!

어머니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최 노인의 눈치를 봐 가며) 여보 영감…….

최 노인 뭐요?

어머니 내 생각 같아서는……. (사이)

최 노인 뭣이 어쨌어?

어머니 다른 집으로 갈아 잡는 게 상책일 것 같으오만…….

최 노인 (㉠ 말없이 눈만 부릅뜬다.)

어머니 애들하고는 여러 번 의논도 했어요.

최 노인 아까 경제 얘기 말ियो?

어머니 예.

최 노인 내가 싫다면 안 되는 일이야…….

어머니 그러니까 여태 말을 못 꺼냈죠.

최 노인 이걸 내 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어머니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이 있지, 사람 죽고 집만 있으면 뭘 해요 글썄…….

최 노인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이 집뿐이야.

어머니 누가 그걸 모르나요. 허지만 이 집을 영영 없애 버리지는 것도 아니고 좀 작은 집으로 갈자는 게죠.

최 노인 이 집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 주신 집이야!

어머니 그렇다고 자식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기도 못 피는 꼴을 보고만 있겠어요?

최 노인 뭐라고?

어머니 경수만 하드래도 빈손으로 취직을 하자는 것이 틀린 재산이죠. 요즘 세상에 공 안 들고 되는 일이 있답데까?

최 노인 그래 경수 취직 자금을 얻기 위해서 집을 팔자는 거야?

어머니 그것뿐이 아니죠. 경애도 시집 보내야겠고 내년이면 경제가 대학에 가야 하고…… 앞으로 돈으로 메꾸어야 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예요?

최 노인 (㉡ 긴 한숨을 내쉬다.)

어머니 나도 무엇이 좋아서 오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자고 하겠우…… 허지만 참대 같은 자식들을 위해선…….

최 노인 (㉠ 말없이 일어서 화초밭으로 가서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만 있다.)

어머니 우리야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젊은 애들이 불쌍하지……. (㉡ 하며 눈시울을 누른다.)

경운이가 어느새 나와 마루에 서 있다. 최 노인은 좌우의 건물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서서히 대문 쪽으로 나간다.

(… 중략 …)

경운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어떻게 되겠죠.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어머니 (눈물지으며) 굶는 게 두려우겠니? 사는 일이 두렵지.

이때 화려한 양장을 한 경애가 방에서 나온다.

경운 (감탄을 하며) 언니! 그렇게 차려 놓고 보니까 진짜 배우 같군요!

경애 언제는 가짜였니!

경운 김칫국 먼저 마시네요. 호…….

경애 요 계집애가……. (㉢ 하며 구두를 신는다.)

어머니 일찍 좀 들어오너라.

경애 일이 끝나야죠. 참 어머니 오늘 일이 해결만 되면 염려 없으셔…… 이보다 더 좋은 집도, 자가용도 그리고 오빠 취직도 만사 오케로 척척박사일 테니까요.

어머니 잔소리 말고 시집이나 가! 그까짓 영화배우를 평생 할 테냐!

경애 어머니 남의 인격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는 지금 나의 일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인생의 위기에서 있는 거예요.

경운 아이…… 언니두, 그런 말을 어머니께서 알아들으셔야죠!

경애 (명랑하게 웃으며) 나의 유일한 협력자요 후원인은 경운이 너뿐이구나!

- 차범석, 불모지 -

26. <보기>는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배경 : 고층 건물. 무대 전면을 제외한 삼면에 설치.
- ㄴ. 조명 : 등장인물에 집중. 주변으로는 어두운 조명.
- ㄷ. 의상 : 1950년대의 의상. 오래되어 헤어진 옷.
- ㄹ. 집 : 서울의 전통적 가옥. 넓고 초라한 상태.
- ㅁ. 화초밭 : 아담한 크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시든 화초.

① ㄱ : 집이 도시 한복판에 있고 최 노인이 좌우를 쳐다보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이다.

② ㄴ : 서울 변화가가 배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③ ㄷ : 경애는 배우 지망생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 달리 화려한 의상을 입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④ ㄹ : 과거에는 번듯한 집이었겠지만 현재는 기둥이 썩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이다.

⑤ ㅁ : 최 노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화초밭이 망쳐진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계획이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문제 상황에 대해 난처해 하고 있다.
- ③ ㉢ : 착잡한 심경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28. 어머니가 최 노인을 설득하는 근거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집이 점점 낡아 가고 있다.
- ②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 ③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④ 집이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 ⑤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9. 위 글에 나타난 상황과 인물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어질 장면을 가상하여 써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이때 경수가 술에 취해 등장.

어머니 (반갑게) 경수 오니? 아침은…….

경수 (힘없이) 친구 집에서 먹었어요.

경운 (일부러 농조로) 서울 인심은 아니군요? 아휴 술 냄새.

어머니 술 좀 그만 해라. 몸을 생각해야지!

경애 오빠, 너무 상심 말아요 다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봐! … ①

경수 (고개를 숙인 채) 응…….

경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나 다녀올게요! (퇴장)

어머니 어유 언제나 속이 들러는지 원. (경수의 손을 잡으며) 경수야, 너무 걱정 마라. …………… ②

경수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년이면 경제 대학도…….

경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쏘아보며) 오빠가 언제부터 동생 을…… 오빠도 언니도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 ③

어머니 아니야. 다 집이 문제야, 집이.

이때 최 노인 등장.

최 노인 (화난 표정으로) 아니, 넌 어디 있다 이제 오는 거야! 염치가 있어야지! 어린애도 아니고…… 취직 안 된다고 놀고만 있으면 돼? …………… ④

경수 (말은 못한 채 한숨만 내뿜다.)

어머니 당신도 참. 애가 무슨 잘못이 있대구요. 이 집을……. … ⑤

최 노인 뭐라고? 집…… 또 그 얘기야? 저런 놈을 위해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어?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의 줄거리]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은 수성궁에서 김생을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한다. 두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해서 금지된 사랑을 속삭이지만, 결국 탄로나 운영은 자살하고 김생도 뒤따라 죽는다. 천상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옛일을 생각하며 수성궁에서 노닐던 중, 마침 유영을 만나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김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례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그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낙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슬퍼한 것은, ㉡ 대군이 한 번 돌아가시자, 고궁에 주인이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랬을 뿐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兵火)를 겪은 후로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 있는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봄빛을 자랑할 뿐이니, 그 옛날의 모습이 바뀌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인사(人事)의 변화가 쉬움이 이와 같거늘 ㉢ 다시 와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입니까?”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仙人)으로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상제께서 태청궁(太淸宮)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실을 따 오라 하시기로, ㉣ 제가 반도(蟠桃)를 많이 따 가지고 와서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되어 진세(塵世)에 적하(謫下)되어 인간의 괴로움을 곱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허물을 용서하사 삼청궁(三淸宮)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香案)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삽기로, 돌아가서 이때를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

김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하였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 버린들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우리들의 원한은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 오늘 저녁에 존군(尊君)과 서로 만나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옳드려 바라건대, 존군께서는 이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 주시옵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중략 …)

[A] 이때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 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만이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책을 감추고 때때로 내어 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하였다. 후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미친 바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30.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김생과 운영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알리고자 한다.
- ② 김생과 운영은 전생부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 ③ 김생과 운영은 안평대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김생과 운영은 죽음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성취하였다.
- ⑤ 김생과 운영은 인간 세상에 다시 내려오고 싶어 한다.

31. ㉠~㉤를 시간 순으로 배열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2. <보기>의 설씨녀가 운영에게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설씨녀를 흠모하던 가실은 그녀의 아버지가 징집되자 혼인을 약조하고 대신 군대에 지원한다. 기한이 지나도 가실이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내려 한다. 약속을 지키려 시집가기를 거부하다 집 안에 갇힌 설씨녀 앞에 마침내 남루한 차림의 가실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사랑을 이룬다.

- ① 이상 세계로 도피하려 하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이유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 ③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 ⑤ 친한 이들도 결국 자신의 이해대로 행동하니, 사람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33. <보기>와 비교할 때, [A]가 주는 표현상의 효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때 유영도 잠깐 누워 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만이 있었다. 유영은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 두고 때때로 내어 보고는, 이야기에 착오가 있으면 바로잡고, 빠진 대목은 보태었다. 제목을 ‘운영전’이라 하고, 널리 세상에 알려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하였다.

- ① 김생과 운영이 앞으로 취할 행동을 암시한다.
- ② 김생과 운영의 이야기에 담긴 비극성을 강화한다.
- ③ 김생과 운영에게 일어난 사건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④ 김생과 운영의 이야기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부여한다.
- ⑤ 김생과 운영이 처한 상황을 좀더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우리말 단어의 발음 기호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길동’이라는 지명을 적기 위하여 ‘吉[길]과 ‘同[동]을 끌어와 ‘吉同’으로 적고 [길동]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자의 음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음차 표기’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자의 뜻, 다시 말해서 훈(訓)을 빌려와 우리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栗(밤 울)의 훈으로 [밤]을 나타내고, ‘峴(고개 현)의 훈으로 [고개]를 나타내어, ‘栗峴’으로써 우리말의 [밤고개]를 표기하는 것이다. ‘栗峴’을 [울현]이라 읽지 않고 [밤고개]로 읽는 이 방법은 한자의 뜻, 즉 훈(訓)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훈차 표기’라 한다.

이러한 단어 중심의 한자 차용 표기는 점차 두 단계에 걸쳐 문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문장 표기의 1단계는 ‘我愛汝’([아애여], 나 사랑 너)와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중국어식 어순을, ‘我汝愛’(나 너 사랑)와 같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단계였다. 1단계는 점차 명사와 용언 어간에 각각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는 2단계로 이어졌다. 2단계에 속하는 향가 표기, 즉 향찰은 ‘我愛汝’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 ‘我隱 汝乙 愛爲隱如’([아은 여을 애위은여], 나는 너를 사랑하나다)와 같이 상당히 체계화된 문장 표기 모습을 보여준다. 향찰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하여 대체로 뜻이 중요한 명사나 용언 어간은 ‘훈차’를 하고,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조사나 어미는 ‘음차’를 함으로써, 한 어절의 표기가 ‘훈차+음차’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역사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를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새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자 차용 표기를 알고 있던 세종대왕은 왜 일본과 달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어와 우리말이 갖는 음절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찾는다. 일본어는 음절이 간단하여 한자로 표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50개 정도면 충분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곳], [닫]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수도 2,000개 이상이 필요하였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보인다.

34.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훈차에서 한자 한 글자는 우리말 음절 하나와 대응되었다.
 - ② ‘愛爲隱如’(사랑하나다)의 ‘爲’(할 위)는 훈차 표기 방법을 따랐다.
 - ③ [곳], [닫]과 같은 음절은 한자 한 글자로 음차 표기할 수가 없었다.
 - ④ ‘坪村’을 [평촌]으로 읽으면 음차가 되고, [벌말](벌마을)로 읽으면 훈차가 된다.

- ⑤ 한자 차용 표기는 ‘단어 표기 → 문장의 어순 조정 → 조사와 어미의 첨가’ 순서로 전개되었다.

35.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향찰에서 보조 성분의 어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 ② 한자 차용 표기가 고려 시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 ③ 한자로는 조사나 어미의 문법적 기능을 잘 드러낼 수 없어서
- ④ 한자 차용 표기로는 우리말의 소리를 충분히 표기할 수 없어서
- ⑤ 한자 차용 표기에서 음차는 문제가 없었지만, 훈차는 문제가 많아서

36. <보기>의 설명 중, 위 글로 미루어 타당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ㄱ. 고대에 우리말과 중국어의 발음은 달랐으나 어순은 비슷했다.

ㄴ. 어떤 언어 공동체의 문자와 표기는 그 공동체의 언어 특징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ㄷ. 한자 차용 표기에서 ‘훈차+음차’ 표기의 단위는 현대 국어 맞춤법의 띄어쓰기 단위와 관련이 깊다.

ㄹ. 현대 일본의 문자와 표기는 그들의 한자 차용 표기를 계승한 것이므로 향찰과는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7. <보기>의 우리말을 영어와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활용하여 향찰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서 읽는다고 할 때, 쓰기와 읽기의 방법이 올바른 것은?

<보 기>

[나는 너를 사랑한다]

* 국어 로마자 표기법

ㄴ	ㄷ	ㄹ	ㅂ	ㅅ	ㅇ	ㅎ	ㅏ	ㅑ	ㅠ	ㅡ	ㅣ
n	d	r, l	b	s	ng	h	a	eo	yu	eu	i

- <쓰 기>
<읽 기>
- ① I-neun YOU-reul LOVE-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 ② na-neun neo-reul sarang-handa. [I-neun YOU-reul LOVE-handa]
 - ③ I-neun LOVE-handa YOU-reul. [I-neun LOVE-handa YOU-reul]
 - ④ ai-neun yu-reul reobeu-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 ⑤ I-neun YOU-reul LOVE-handa. [ai-neun yu-reul reobeu-handa]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감각하는 사물들이 정말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감각하고 있는 이 책상이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혹시 이것들이 상상의 산물은 아닌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감각을 넘어서 물리적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보여 주었듯이, 인생이 하나의 긴 꿈에 불과하다는 ‘꿈의 가설’에서 어떤 ㉠ 논리적 모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논리적 가능성이 ㉢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꿈의 가설을 굳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나) 꿈의 가설보다는, 나의 감각들은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들이 나에게 작용하여 만들어 낸 것들이라는 ‘상식의 가설’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들을 더 잘 설명한다. 개 한 마리가 한 순간 방 한편에서 보였다가 잠시 후 방의 다른 곳에 나타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 그것이 처음 위치에서 일련의 중간 지점들을 차례로 통과하여 나중 위치로 연속적인 궤적을 따라서 이동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개가 감각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면 내게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꿈의 가설에 따르면 그 개는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동안에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운 위치에서 갑자기 생겨났다고 해야 한다.

(다) ㉣ 그 개가 내게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면, 내 경우에 미루어 그 개가 한 끼를 먹고 나서 다음 끼니 때까지 어떻게 차츰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에도 점점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따라서 나의 변화하는 감각 경험은, 실재하는 개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만, 단지 나에게 감각되는 색깔과 형태들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면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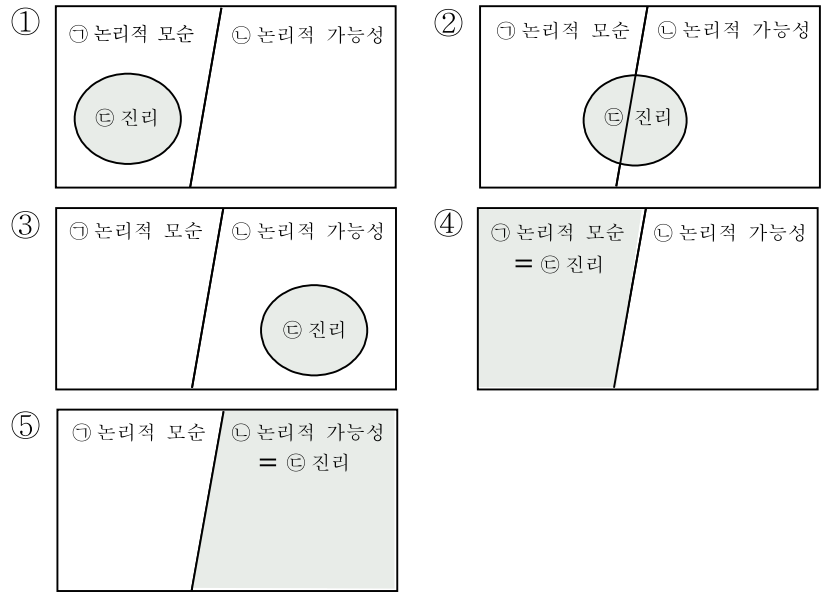
(라) 사람의 경우 문제는 더 분명하다. ㉤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생각, 즉 내가 그러한 소리를 낼 때에 갖는 생각과 비슷한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는 원칙에 따르면, 나 자신과 나의 감각 경험을 넘어서 나의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상식의 가설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 러셀, 철학의 문제들 -

43. 위 글의 논증 과정을 잘못 정리한 것은?

- (가)로부터 → 상식의 가설을 증명하는 방법은 없다. ①
- (나)~(라)로부터 → 꿈의 가설은 나의 감각 경험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②
- (라)로부터 → 상식의 가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한다. ③
- 가설 선택의 원칙 →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 ... ④
- 결론 → 그러므로 상식의 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 ⑤

44. (가)의 설명에 따를 때, ㉠~㉢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점]



45. ㉣와 ㉤에 공통된 추론 방식은? [1점]

- ① 사람들의 말에 기대어 추측하였다.
- ②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하였다.
- ③ 가정을 세우고 그 귀결을 검토하였다.
- ④ 직관을 통하여 사례의 본질에 도달하였다.
- ⑤ 알려진 진리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연역하였다.

46. 위 글과 <보기>의 대비점을 가장 잘 지적한 것은?

— <보 기> —

인간은 본능적으로 독립적인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위 글의 논증을 접하기 전부터, 반성 능력을 갖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 ① 위 글은 감각을 넘어서려고 하지만, <보기>는 감각을 본능적인 것으로 본다.
- ② 위 글은 감각을 통하여 믿음에 도달하지만, <보기>는 믿음을 통하여 반성에 도달한다.
- ③ 위 글은 상식을 확고한 사실로 간주하지만, <보기>는 상식에 대하여 회의를 제기한다.
- ④ 위 글은 합당한 가설을 찾는 데 실패하지만, <보기>는 그러한 가설에 성공적으로 도달한다.
- ⑤ 위 글은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는지를 논하지만, <보기>는 그러한 믿음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본다.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미술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의 인상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인상파는 고전주의적 균형과 정확한 묘사를 중시하던 인습을 타파하고 색채 묘사의 혁명을 일으켰다. 인상파 화가들은 미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화와 같은 품위 있는 주제를 완벽한 구성으로 그려 내는 대신에, 밝게 빛나는 자기 주변의 세계를 생동감 있게 옮겨 놓으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의 행복한 생활 단면이나 해돋이와 같은 순간적 장면도 색채의 아름다운 배열만 지니고 있다면 그림의 소재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상파는 하나의 유파로서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세잔과 고흐, 고갱 등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한편으로 인상파가 이룩한 업적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상파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세 화가는 눈에 비친 자연을 인상파처럼 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상실했다고 느꼈고, 그것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인상파를 극복하려 한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그 지향하는 방향은 서로 달랐다.

먼저 세잔은 인상파가 순간의 감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변함없는 형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색채의 밝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화면에 깊이와 거리감을 부여하려 했고, 이를 위해 ‘세계의 모방’이라는 전통적 목적을 버린 채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고흐는 인상파가 시각적인 인상에 너무 ㉠ 빠져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했다고 판단했다. 인상파의 미술이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예술가의 활기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 라고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친 붓자국으로 격정적 내면을 표출하였고 필요한 경우 형태의 왜곡까지도 감행하였다. 한편 고갱은 서구 문명이 축적한 근대적 학문과 예술 전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 을 열망했고, 그것은 복잡한 물질 문명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미련 없이 세련된 인상파적 요소를 버리고 원시적 가치를 찾아 나설 수 있었다.

현대 미술은 위에서 언급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인상파의 주제 접근 방식은 현대 미술의 폭을 넓혀 주었고 세잔, 고흐, 고갱이 제기한 문제 의식은 입체파, 표현주의, 원시주의, 야수파 등 현대 미술 사조가 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미술가들은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47. 위 글을 바탕으로 ‘현대 미술’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상태를 포착하여 표현하였다.
- ②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형식미를 추구하였다.
- ③ 자연의 빛깔에 얽매이지 않고 강렬한 색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 ④ 구(球), 원기둥, 원뿔, 육면체 등의 기본 요소들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 ⑤ 추상적 이론 대신 문명화되지 않은 토착민의 작품에서 창작 동기를 얻었다.

48. 세잔, 고흐, 고갱이 토론을 한다고 할 때,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세잔 :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하학을 더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 ② 고흐 : 수학적 지식이 그림 그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난 생물학에 매료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야.
- ③ 고흐 : 그런 학문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마음 속의 열정을 표현하는 게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가 아닐까?
- ④ 세잔 : 그래도 사물들의 형태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
- ⑤ 고흐 :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대상을 약간 변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49. 세 화가가 인상파를 수용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사실적인 전기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소	고려 사항
① 영화 배우	고흐 역은 열정적 성격이 겉으로 드러나는 배우를, 세잔 역은 과학도의 분위기를 풍기는 배우를 섭외한다.
② 촬영 장소	미술의 도시 파리, 날씨가 쾌청한 프랑스 남부, 남태평양 어느 섬의 토착민 마을로 설정한다.
③ 촬영 기법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고흐의 창작 과정을 촬영할 때에는 클로즈업(close-up)과 같이, 표정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한다.
④ 의상과 소품	19세기 후반에 일반인들이 즐겨 입은 의상과 각종 그림 도구, 제도 용구 등을 준비한다.
⑤ 음악과 음향	잔잔하고 평탄한 곡조의 서정적인 주제 음악과 야외 장면에서 필요한 각종 효과음을 준비한다.


50. ‘빠진’이 ㉠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1점]

- ① 차는 강가의 진흙 수렁에 빠진 상태였다.
- ② 새 왕은 먼저 빈곤에 빠진 농민들을 구제하였다.
- ③ 악마의 유혹에 빠진 주인공은 파멸의 길을 걸었다.
- ④ 어머니는 컴퓨터 게임에 빠진 아들을 몹시 걱정하였다.
- ⑤ 그의 우정은 궁지에 빠진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확인되었다.

51. <보기>는 고흐를 계승한 작품과 그에 대한 해설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 들어갈 말을 고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즐거운 어릿광대들’이라는 앙리 루소의 이 그림은 도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소재를 때문지 않은 시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림 속의 동식물들은 실제 모습과 달리 꿈속에서처럼 불가사의하게 보인다. 이 그림은 취향이 까다롭고 격조 높은 사람에게서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순수한 색과 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솔직한 정서는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 ① 고상하고 초월적인 것 ② 솔직하고 건강한 것
- ③ 신비하고 몽환적인 것 ④ 소박하고 순수한 것
- ⑤ 원시적이고 이국적인 것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20세기 초반 천문학자 허블은 윌슨 산의 망원경을 통해 먼 은하들을 관측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스펙트럼에서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편이(赤色偏移)’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본래의 파장값보다도 큰 값으로 지구상에서 관측된 것인데, 이는 은하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 주는 증거였다.

(나) 흥미로운 것은 지구와 관측 은하 사이의 거리가 적색편이의 비율과 서로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에 ㉠을 결합시키면,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 가까운 은하보다 먼 은하의 후퇴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이가 좁아지는 순간이 없이 간격을 1m만큼 더 벌린다고 해 보자. 간단히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음 사람부터 동시에 1m씩 이동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사람은 1m 이동하면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2m, 세 번째 사람은 3m를 물러서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N 번째 사람이라면 Nm만큼 물러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이가 좁아지지 않아야 하므로, 기준으로

부터 먼 사람은 가까운 사람보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라) 허블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은하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그의 발견 이전에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정적(靜的)인 우주의 모습을 기술하려고 애썼다. 정적인 우주관이 당시의 지배적인 우주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하들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우주를 얽어 놓으면 중력에 의해 은하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정적인 모습은 바로 붕괴된다. 하지만 허블이 우주가 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마) 팽창우주에서 재미있는 점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어떤 은하에서 보더라도 주위의 다른 은하들이 그 은하를 향하여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팽창할 때 먼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모든 은하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 ‘태초’의 순간이 된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모여 있었으니 태초의 우주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뜨거웠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정설이다.

5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가까운 은하보다 먼 은하의 후퇴 속도가 빠르다.
- ② 과거에는 은하들이 지금보다 서로 가까이 있었을 것이다.
- ③ 중력만 작용하는 은하들로는 정적인 우주를 만들 수 없다.
- ④ 먼 은하보다 가까운 은하에서 오는 빛의 파장값 변화가 크다.
- ⑤ 적색편이 현상은 은하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려 준다.

53. ㉠을 참조할 때, <보기>의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중력장 방정식이 동적인 우주를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우주관에 따르기 위해 ‘우주론적 항’이라는 상수를 도입하여 방정식을 수정하였다. 5년 뒤 프리드먼이 우주론적 항을 제거하면서 아인슈타인의 원래 방정식이 맞다고 지적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허블의 연구는 아인슈타인의 원래 방정식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 ① 중력장 방정식을 만들어 동적인 우주의 타당성을 주장할 만큼 그는 앞서 가는 과학자였군.
- ② 정적인 우주관에 대해 반발하여 프리드먼의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그의 커다란 실수야.
- ③ 방정식의 수정을 통해 동적인 우주관까지 수용하려 한 것은 그의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주는군.
- ④ 자신의 올바른 방정식을 수정할 만큼 그도 당시의 지배적

우주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 ⑤ 당시의 지배적 우주관을 바꾸기 위해 그가 자신의 방정식을 수정했던 것은 다소 성급한 행동이었어.

※ 위 글의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기 위해 <보기>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54번, 55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시작 : 학우들의 흥미를 끌 만한 자료
 → 월슨 산의 망원경 사진 ㉠

전개
 (가) : '적색편이'의 개념 설명
 →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을 스펙트럼 위에 표시한 사진 ㉡

(나) : '적색편이, 속도, 거리'의 관계 설명
 →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다) : 거리와 속도의 관계 설명
 →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빠름을 보여 주는 삽화 ㉢

(라) : 정적인 우주와 중력의 관계 설명
 → 은하들이 서로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을 담은 플래시 동영상 ㉣

(마) : 동적인 우주와 시간의 관계 설명
 → 은하의 모습과 지구의 공전 궤도를 그린 그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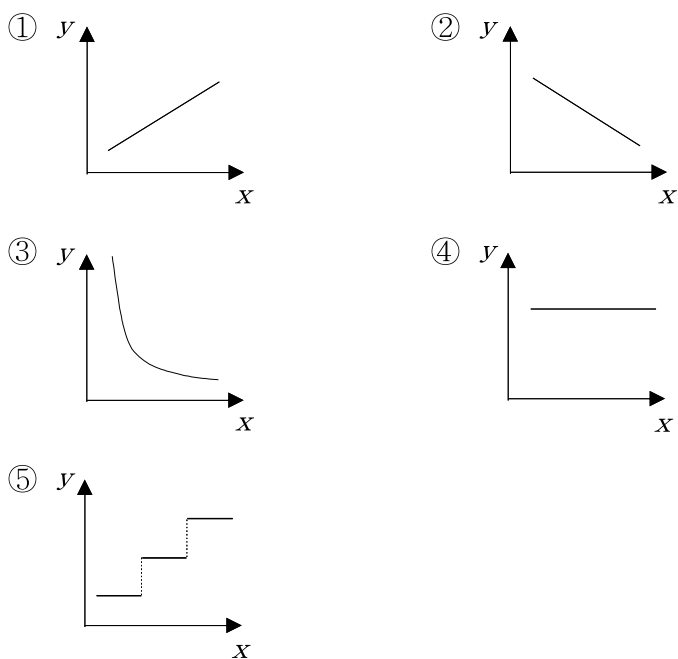
정리 : 글 내용에 관한 간단한 문제

54. <보기>의 ㉠~㉤ 중, 발표를 위한 자료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5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위 글의 ㉡에 들어갈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x : 적색편이의 비율, y : 멀어지는 은하의 속도)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기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의사 결정을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인간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며 성장 과정의 차이나 교육의 정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 등에 따라 욕구의 우선 순위나 성취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소비 욕구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화, 모방, 유행 등 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 인간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소비하는 품목과 방식은 성, 연령, 직업, 계층,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취향'은 가정 환경과 같은 개인의 성장 배경에서 길러진 것이지만 자신의 취향을 '타고난 성향'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 백안시(白眼視)함으로써 계층을 구분하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한다.

18세기 이전까지 영국에서 설탕은 이국적인 향신료이자 약품으로 귀족들만 향유하던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에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져 설탕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설탕의 소비는 중산층과 노동자층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산층과 노동자층의 설탕 소비는 처음에는 귀족들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설탕이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특별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표시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다른 소비재를 선택하여 다른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소비 방식에서 나타나는 모방과 차별화 전략은 한 사회 내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의 또 다른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유행을 들 수 있다. 유행의 특징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소멸된다는 것이다. 유행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대비시키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개성화'에서 비롯되지만,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대중 심리를 자극하여 충분히 확산되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만큼 유행이 소비에서 중요한 시대는 없었다.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는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유행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고, 광고나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발전된 판매 기술은 유행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백화점은 새로운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소비의 순례 장소가 되었고, ㉨ 광고는 대중에게 신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되었다. 유행이 소비를 주도하면서 현대의 소비는 점차 상품 자체보다는 그 상품이 표상하는 이미지와 기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56. 위 글의 제목으로 적합한 것은? [1점]

- ① 소비에서 유행의 중요성
- ② 문화적 시각에서 본 소비
- ③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문화
- ④ 소비 욕구의 보편성과 다양성
- 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형태

57. ㉠의 예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점]

- 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유행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산다.
- ② 아토피성 피부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위해 야채 위주로 식장을 본다.
- ③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아바타를 꾸미는 데 용돈을 아끼지 않는다.
- ④ 1920년대의 신여성들은 그들의 부모와 달리 금시계를 즐겨 찾다.
- ⑤ 신입 사원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다.

58. ㉡과 같이 ‘-시(視)하다’를 붙인 말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동일시(同一視)하다 ② 당연시(當然視)하다
- ③ 문제시(問題視)하다 ④ 적대시(敵對視)하다
- ⑤ 달관시(達觀視)하다

59. ㉢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끌어 내려고 할 때,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비자들은 광고의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광고가 있으면 자기 감각에 맞게 독창적으로 받아들이며 주변으로 확산시킨다. 예컨대 글자를 깨치지 못한 어린아이라도 광고 내용을 일상 생활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 ① 광고는 개인적 성격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 ② 광고는 소비자와 상품을 일체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③ 광고는 소비자의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 ④ 광고는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다.
 - ⑤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 구매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
60. 위 글의 내용을 심화 학습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소비’, ‘유행’, ‘자본주의’를 함께 입력하여 검색해 보았다. 학습에 활용하

기에 가장 거리가 먼 사이트는? [3점]

통합검색 디렉토리 웹문서 이미지 뉴스 백과사전

통합검색 ▼ 소비+유행+자본주의 검색

웹페이지 [총 740개 중 1-5]

- ① 소비와 여가 생활 [현재창] <http://www.geen.pe.kr/content04.htm/.....>
...여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여가 문화가 출현함에 따라 소비 형태도 특화... 같은 취미를 매개로 한 동호인 모임의 소비 형태를 소개...
- ② 신세대 소비 문화 [현재창] <http://seou.or.kr/ghstudy/.....>
...소위 신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 특정한 상표의 유행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 ③ 유행의 필요성 [현재창] <http://www.mbard.ac.kr/s17.htm/.....>
...산업 사회에서 유행이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에 대량 소비를 가능... 유행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
- ④ 유행 통신 [현재창] <http://magazie.co.kr/section1/.....>
...최신 유행하는 국내외 제품의 가격 비교, 할인 판매... 뷰티 뉴스, 라이프 스타일, 연예인 소식 등 제공...
- ⑤ 현대 자본주의와 소비 [현재창] <http://owun.gr.kr/210.104.18.1/.....>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느끼는 여러 집단이 탄생... 기업들도 우리 현실에 맞는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생존을 위해...

⇒ 다음 페이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